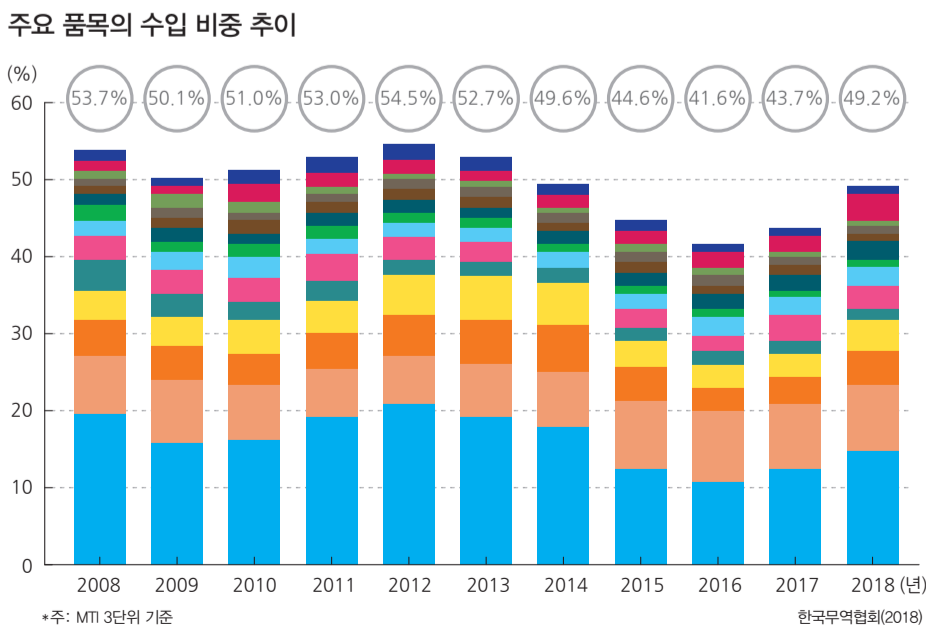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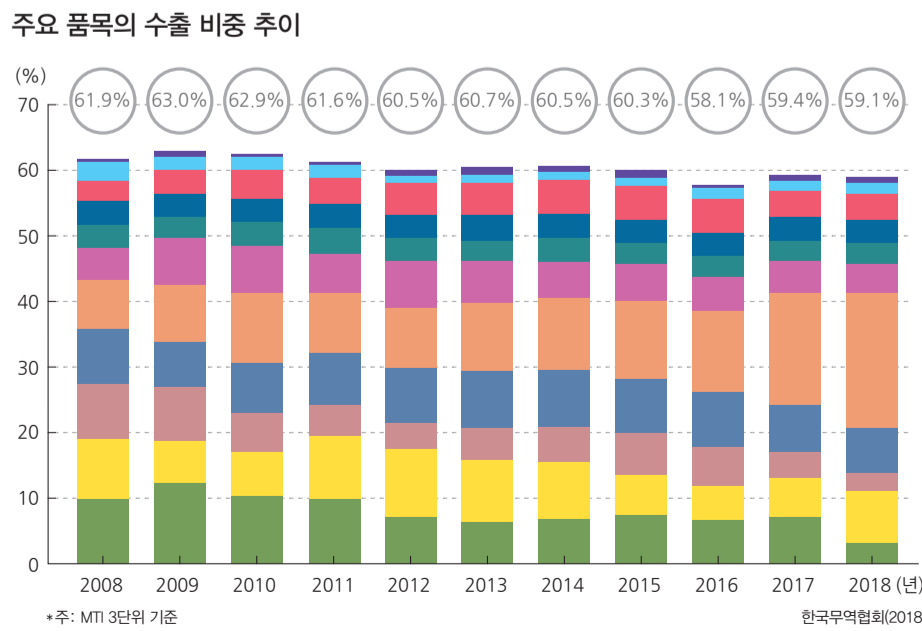


국제 통상

국제 통상의 개념은 협의의 국제 통상과 광의의 국제 통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국제 통상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와 통신·금융·보험·운송·유통·관광·컨설팅 등의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국제 무역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국제 통상은 상품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국가 간 노동·자본·기술·경영 능력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투자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국제 통상은 국제 무역 및 국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환경에 노동, 기술, 경쟁 등에 관한 국제 규범을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 통상의 주요 이슈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과 같은 국제법 및 규범 기반의 국제 협상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제 무역, 해외 및 외국인 직접 투자, 해외 자원 개발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을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후반에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2년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8년 현재 1조 1,405억 달러(수출: 6,055억, 수입: 5,350억)를 달성하였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규모 순위는 9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후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4년에 62.5%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 89.8%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8년 현재 70.4%로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은 최근 10여 년 간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2001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504억 달러에서 2018년 6,05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무역 수지도 93억 달러에서 70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 꾸준히 5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3.3%를 차지하고 있다. 상세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2008년 7.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이 되었다.



있다. 나아가 2018년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9%로 IT 기기의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 및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라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의 수요 회복과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 미국과의 FTA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국내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 확대 등으로 석유 제품의 수출 비중도 2016년 5.3%에서 2018년 7.7%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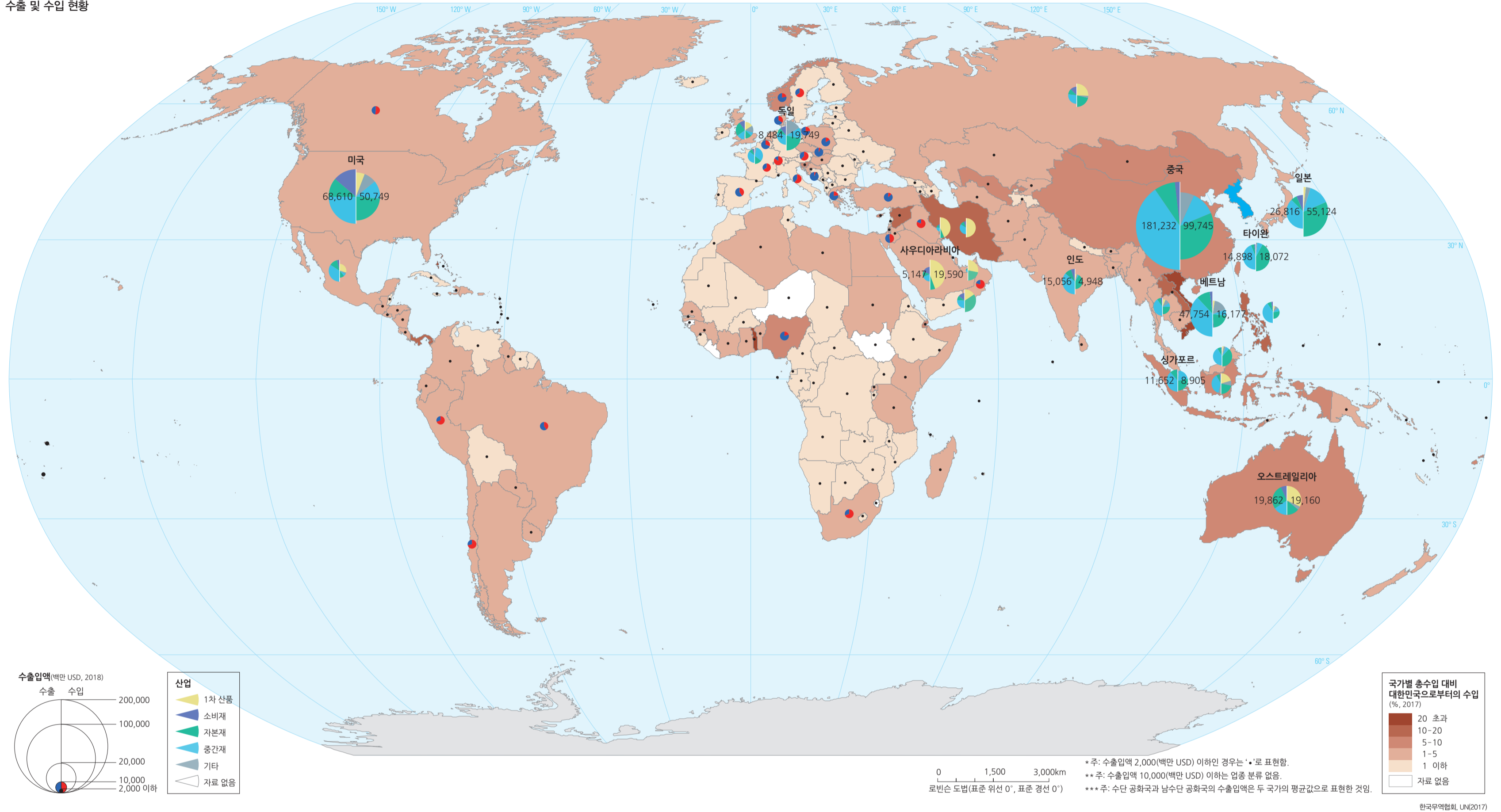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도 수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위기 및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그 이후에는 원유 등 주요 에너지의 물량 및 단가 상승,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다. 품목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국제 유가와 수입 증가율이 동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 도입 물량 확대 등으로 32.9%를 차지하였다. 특히, 2011년 원유 수입액은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저유가로 인해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예를 들어, 에너지 수입 비중은 2012년 34.4%에서 2015년 22.7%로 크게 하락하였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석유 화학 및 석유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2017년 이후 에너지 수입 비중이 다시 증가하여 2018년 26.4%까지 회복하였다. 특히, 원유 수입 비중이 2016년 10.9%에서 2018년 15.0%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34.3%, 20.2%를, 미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12.1%, 11.0%를,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5.1%, 10.3%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들 3개 국가에 대한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51.5%, 41.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1위 수입 대상국이 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후반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133억 달러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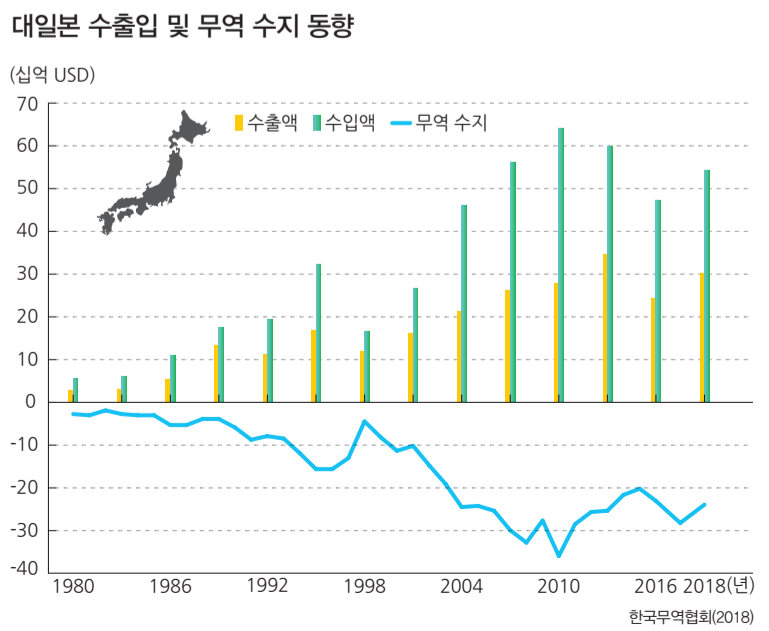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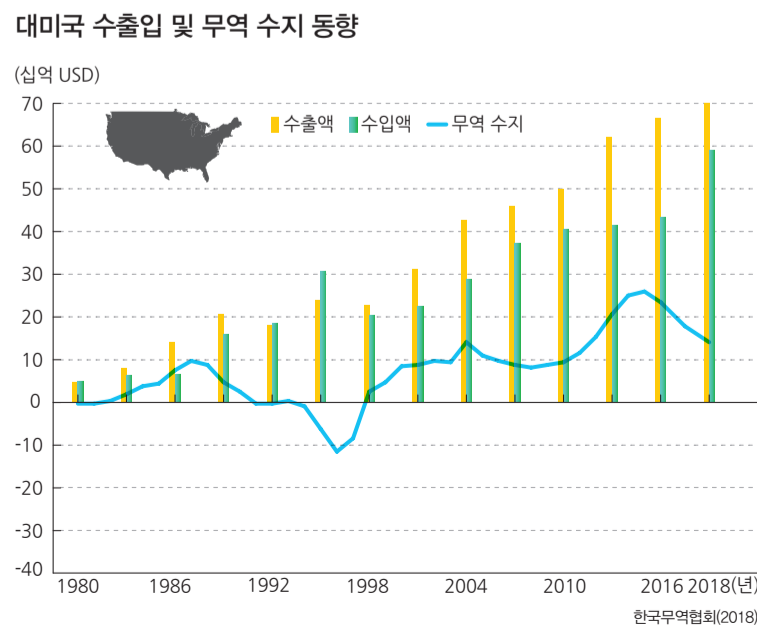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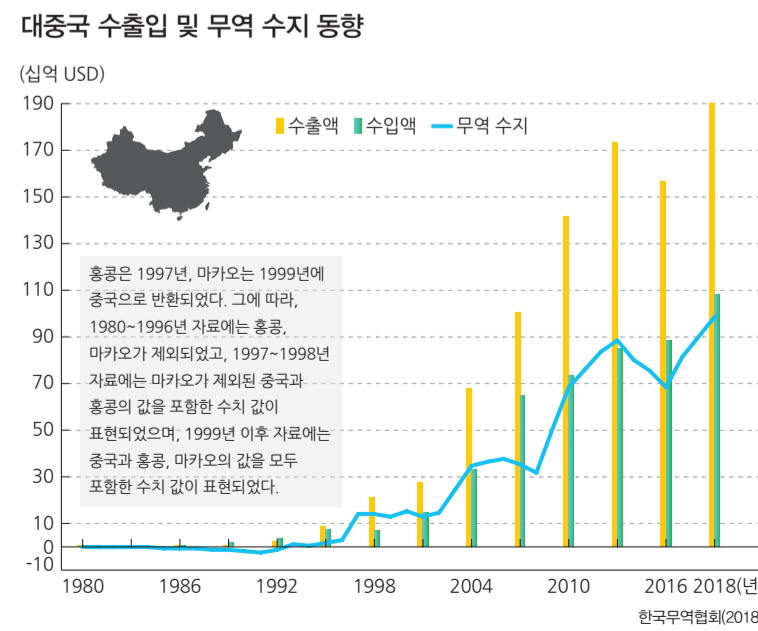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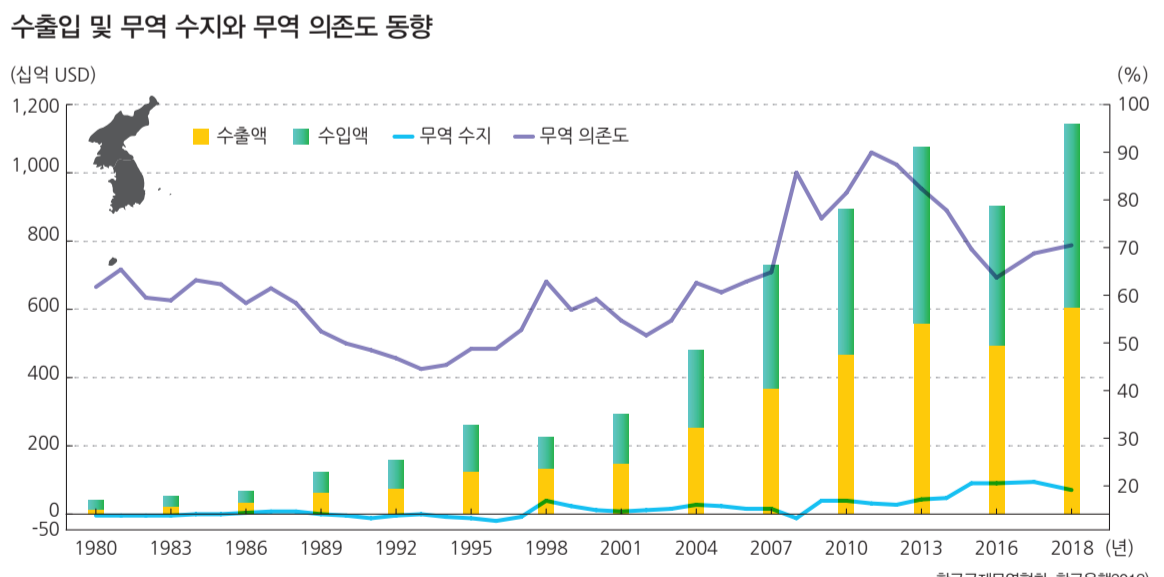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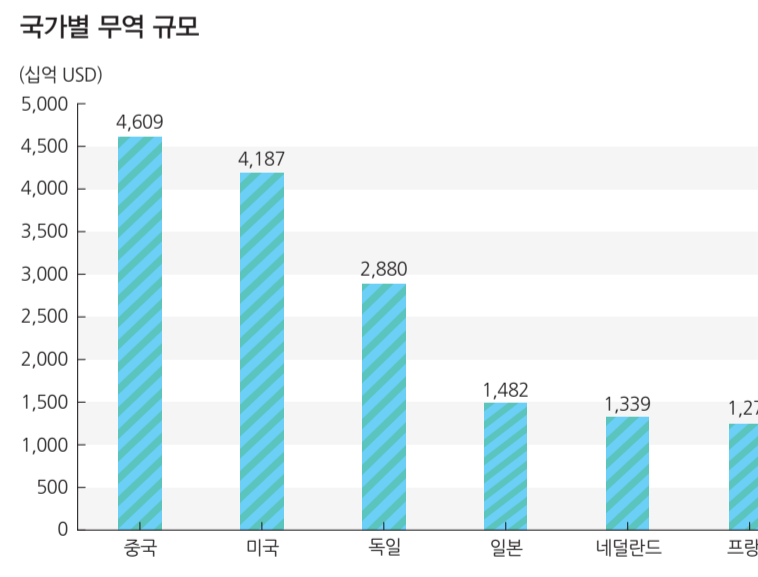
수출 및 수입

수출 및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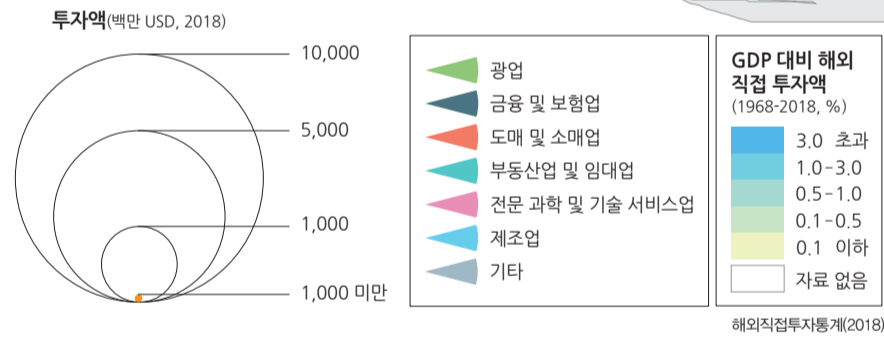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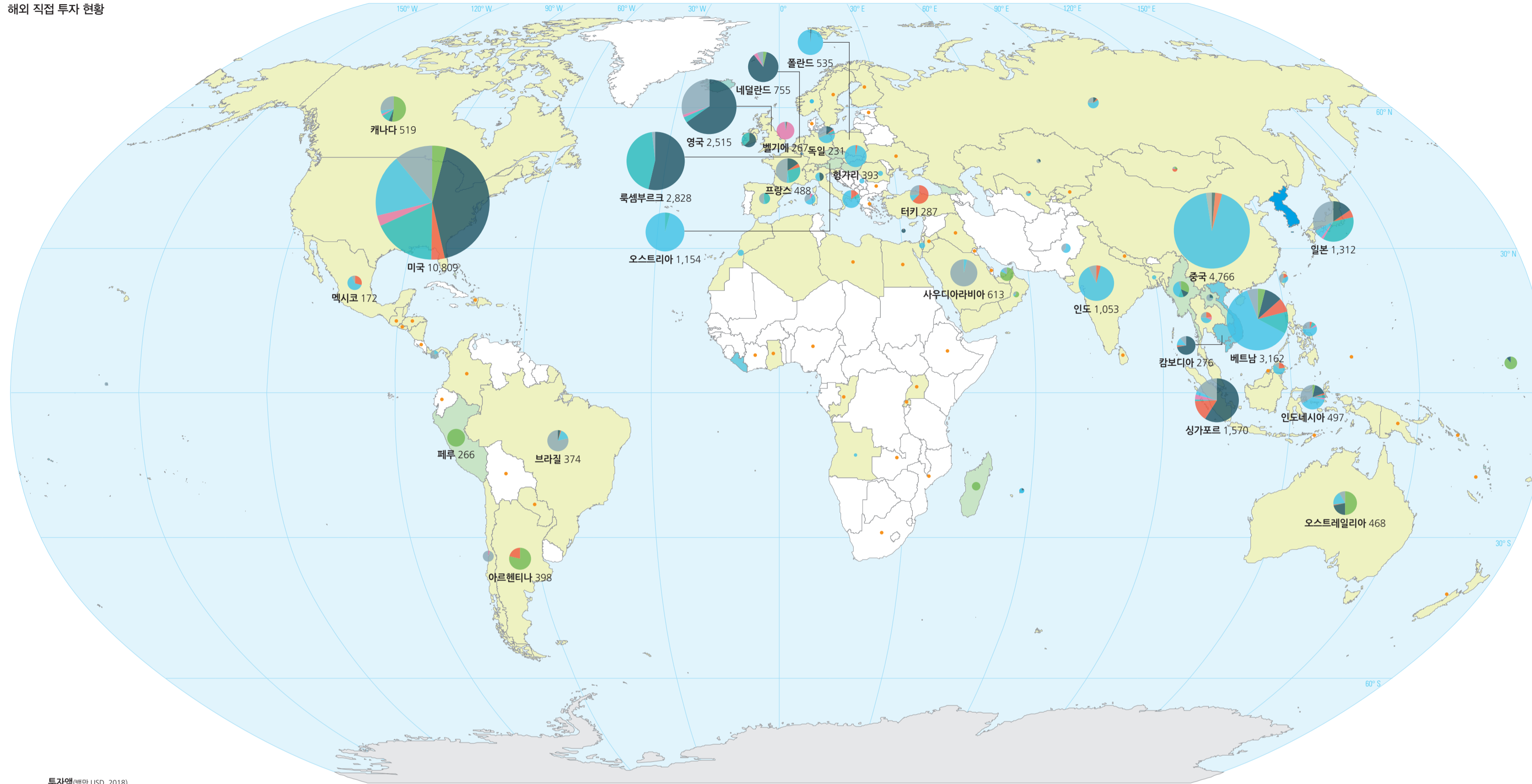
역 수치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세계 경기 회복과 우리 상품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앞질러 2009년(404억 달러)과 2010년(412억 달러)에는 4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달성하였다. 201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세로 인해 흑자(308억 달러)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무역 흑자를 이어 갔으며, 2018년에는 7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대중 무역 수지가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09년에 5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2018년 약 1,0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대일 무역 적자는 꾸준히 증가(2009년 제외)하여, 2010년 361.1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적자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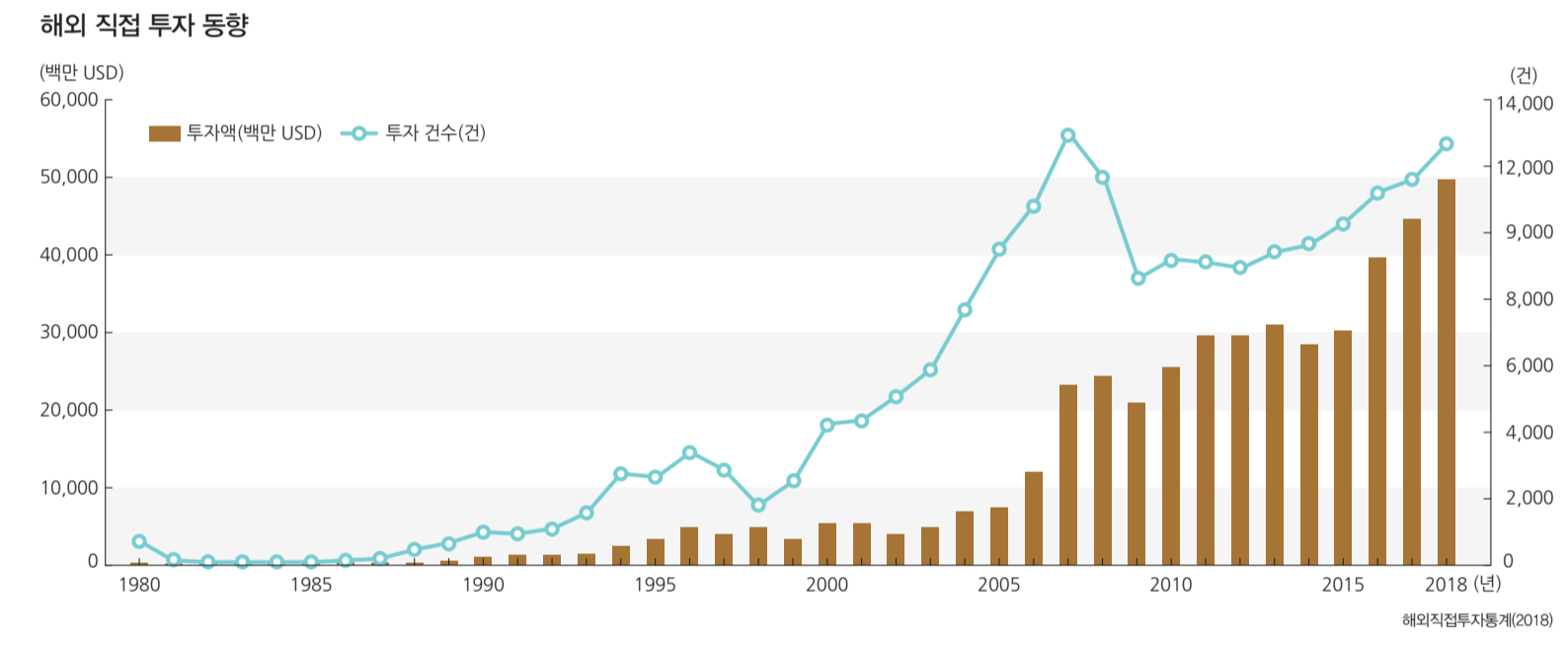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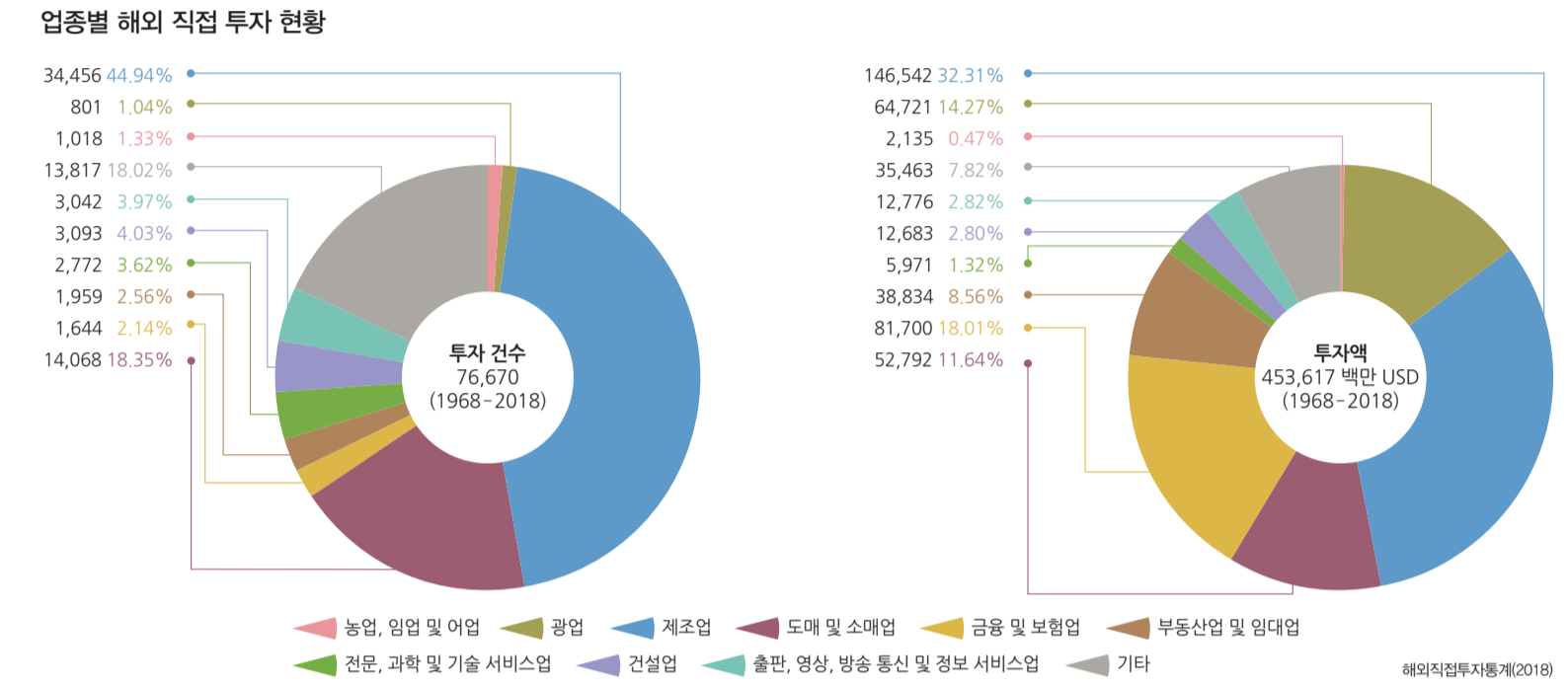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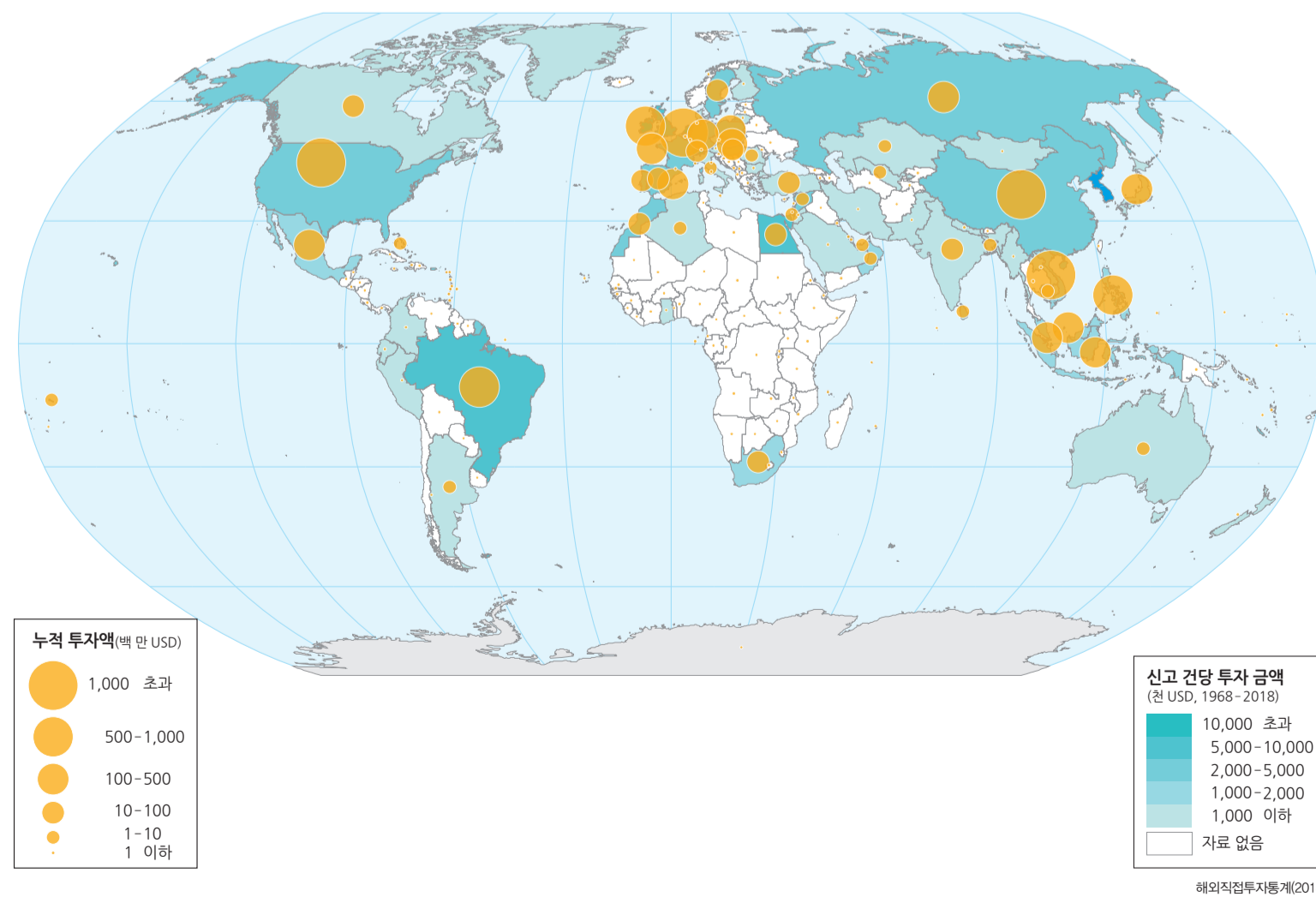


해외 직접 투자는 신규 투자, 인수 합병, 기존 해외 시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사업 행위이다. 특히, 해외 직접 투자는 기업 특유의 우위, 내부화 우위, 입지 특유의 우위를 통해 기업에 보다 나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진보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2007년에 227억 달러를 기록하여 17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18년 현재 497.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누적액은 3,995억 달러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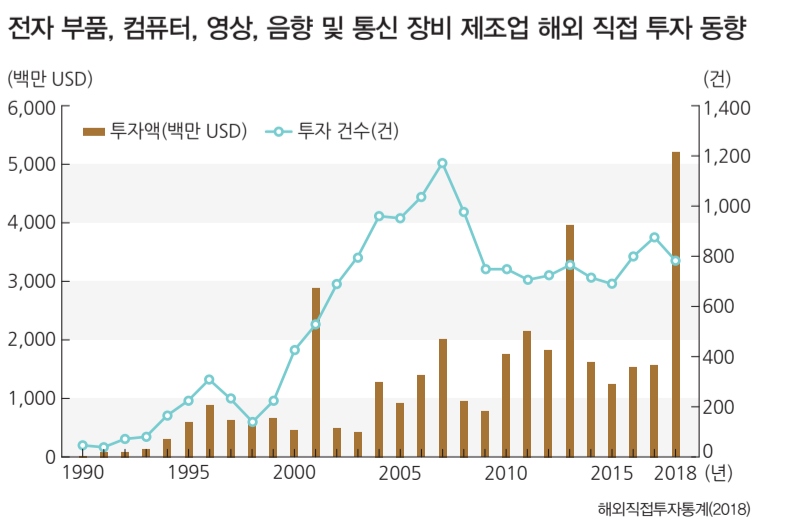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이 각각 34.1%, 22.8%, 2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과 미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미국 해외 직접 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28.1%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 중국이 12.4%, 베트남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 국가에 대한 비중은 3%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베트남 투자 비중이 2010년 4.0%에서 2018년 8.2%로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몇몇 투자 유치국의 국내 총생산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룩셈부르크, 라이베리아, 사모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에 각각 4.1%, 2.9%, 2.1%, 1.3%, 1.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제조업의 투자액이 1,465억 달러이며 전체 투자의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이 18.0%, 광업이 14.3%, 도매 및 소매업이 11.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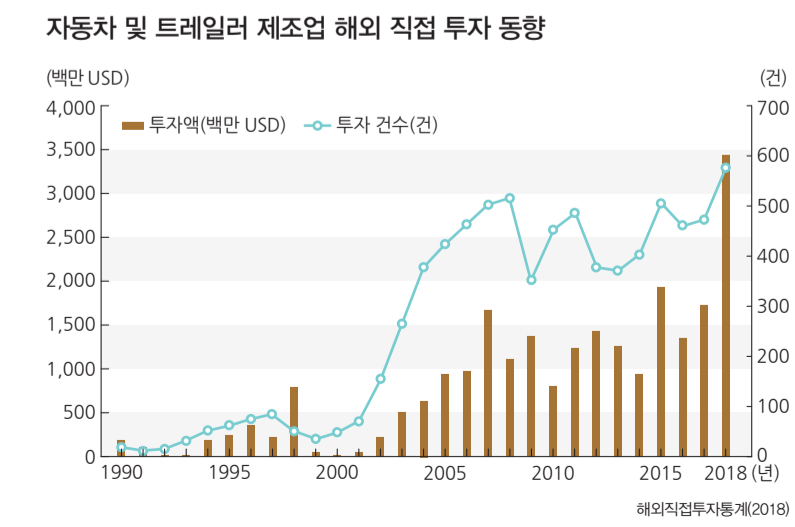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 누적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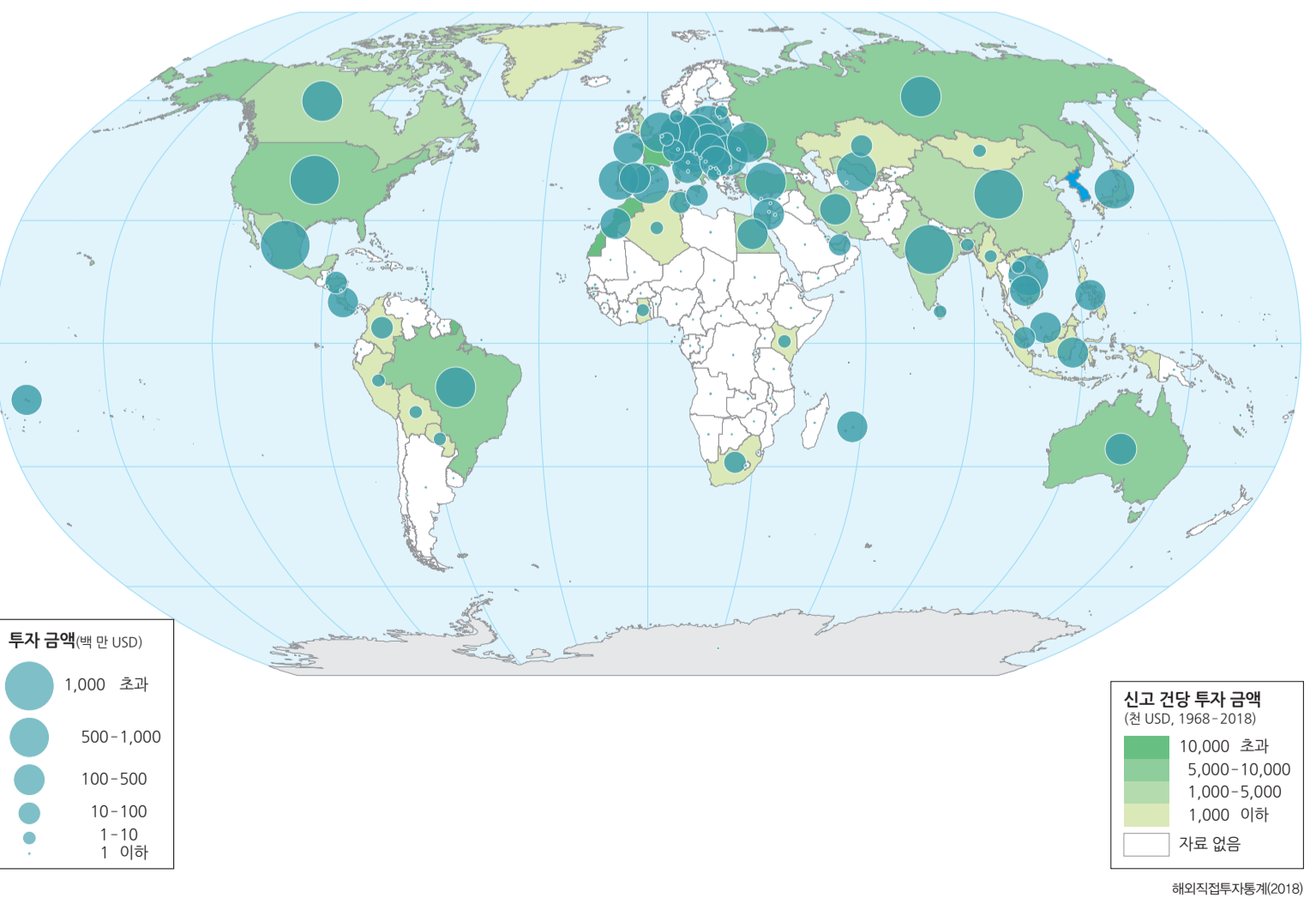
2018년 현재 전체 제조업 대비,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 비중은 각각 10.5%와 6.9%로 가장 높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은 2018년까지 78개국에 366.9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 부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업종의 투자액은 1990년 0.2억 달러에서 2018년 52.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업 부문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51.1%, 홍콩 포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12.2%), 베트남(8.0%) 순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986년에 해외 직접 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본 업종의 투자액은 1990년 1.1억 달러에서 1998년 8.0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2001년 0.4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3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본 업종의 해외 직접 투자(1968-2018년 누적액 기준)는 중국(31.1%, 홍콩 포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12.3%), 인도(10.9%), 오스트리아(5.1%), 폴란드(5.0%), 체코(4.8%)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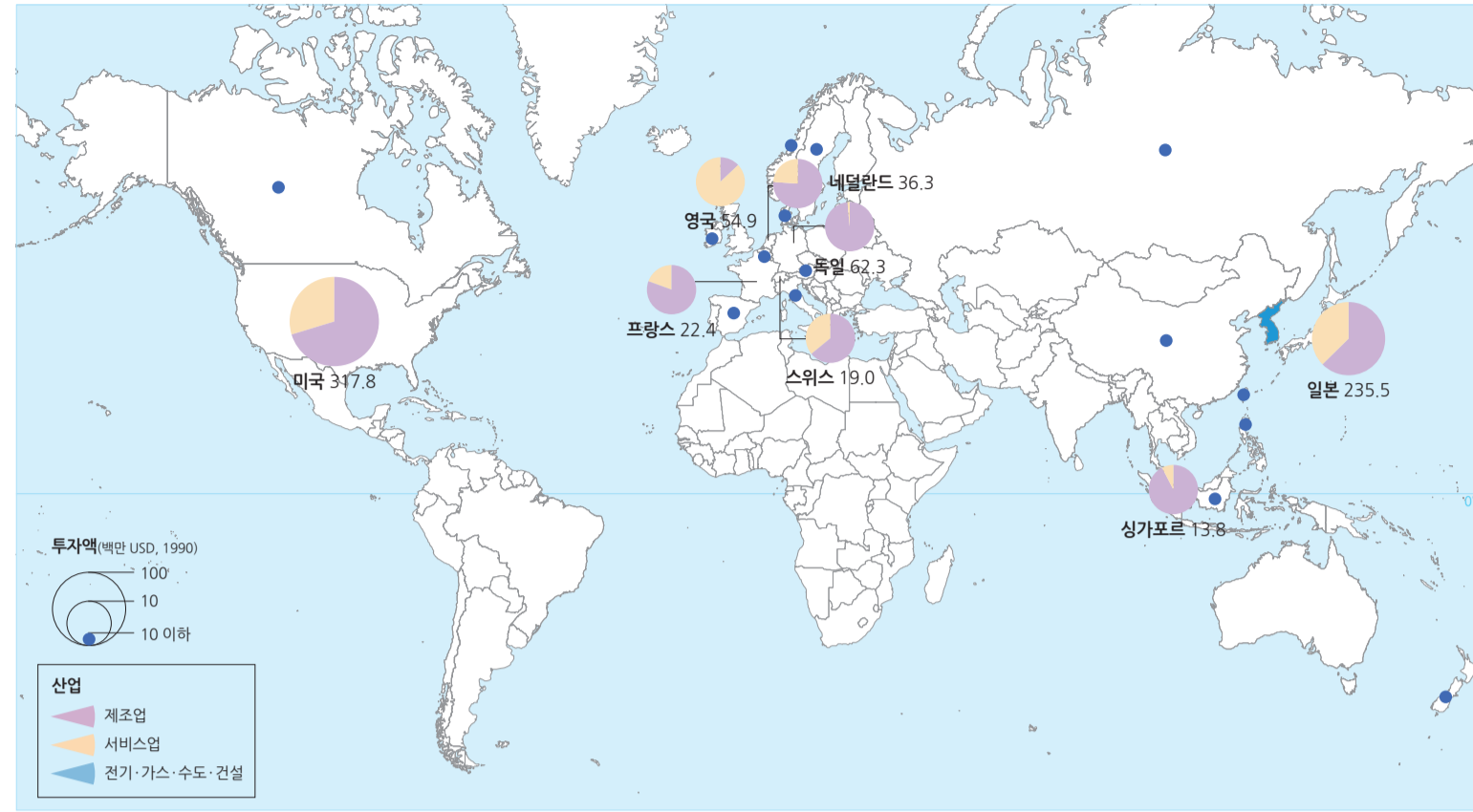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 누적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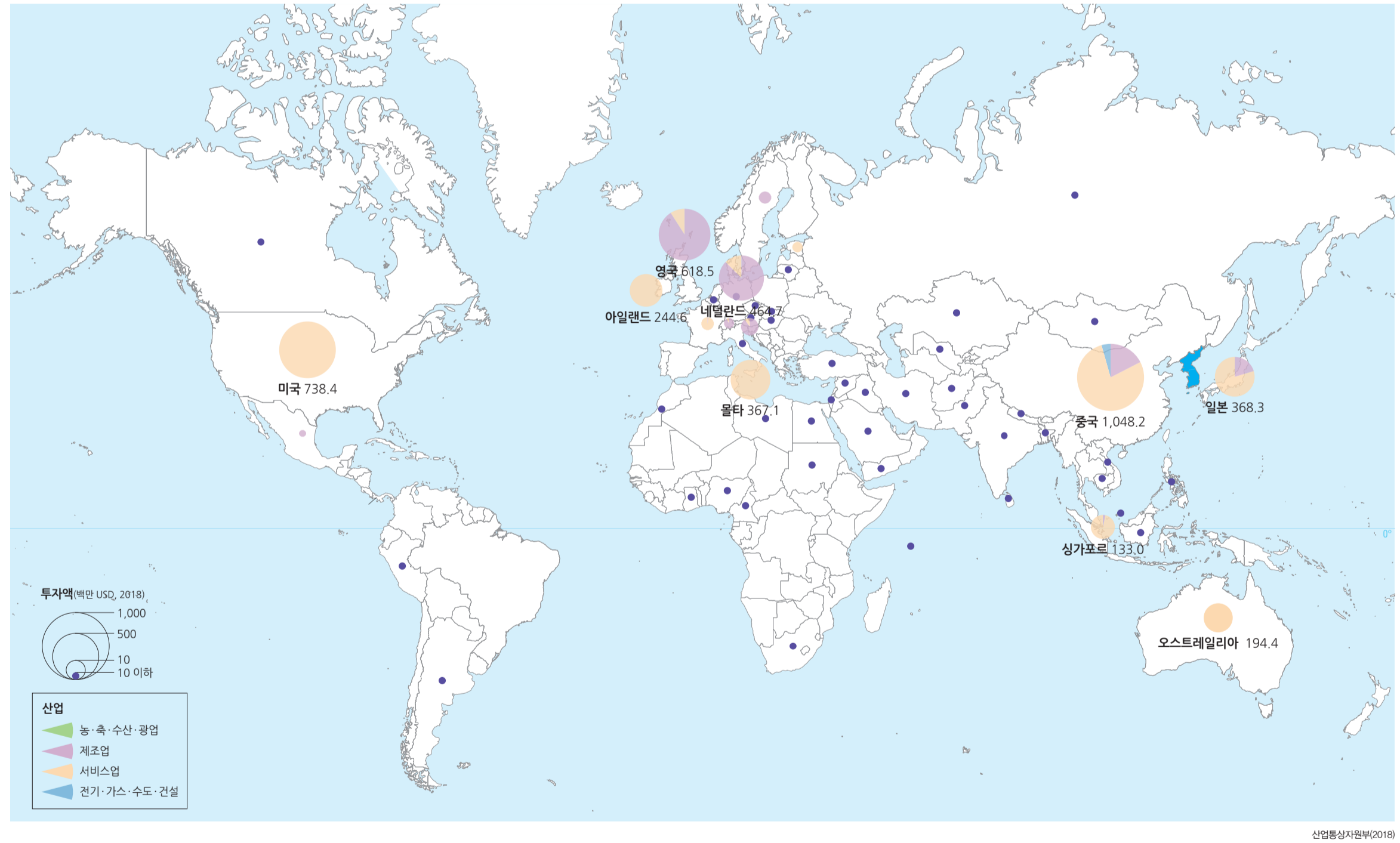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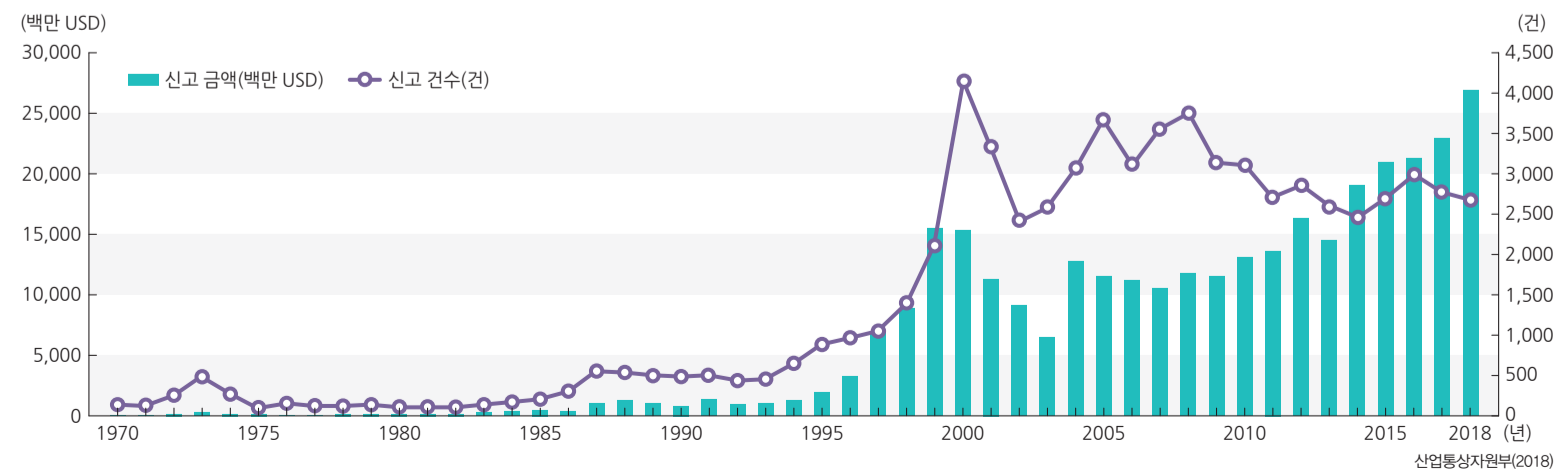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80년대에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9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정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출범시켰고, 신고 수리제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2010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관련 중앙 행정 기관이 모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8억 달러(신고 금액 기준)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13년 145.5억 달러, 2018년 269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는 1990년 26개국에서 2018년 69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는 2008년 23위에서 2018년 5위로 상승하였으며, AT Kearney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뢰 지수도 2007년 24 위에서 2018년 17위로 7단계 상승하였다.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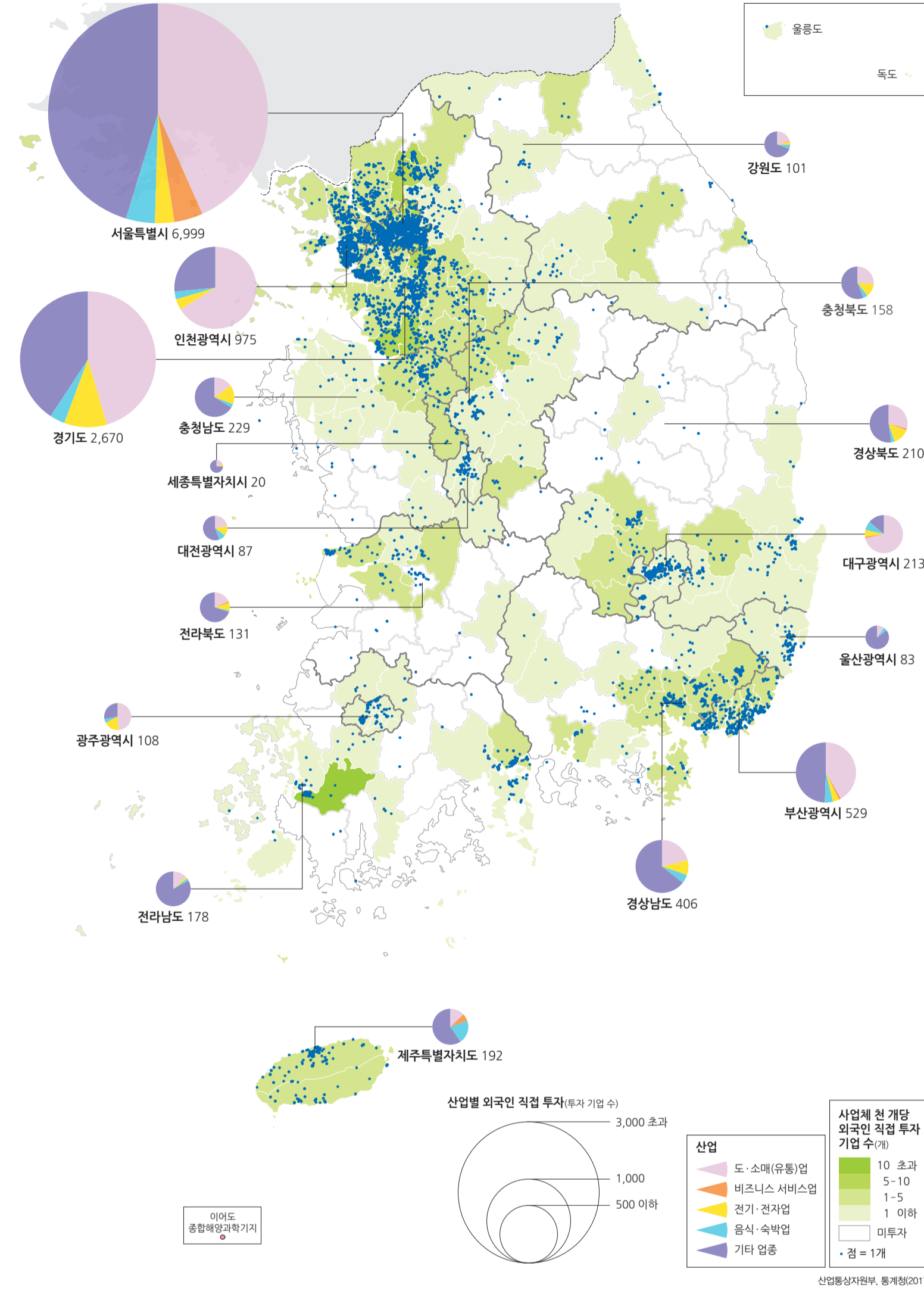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의 특징을 지역 및 업종별로 살펴보면, 199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는 미국(39.8%)과 일본(29.5%)이 지배적이었으나, 2018년에는 유럽, 중국, 미국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의 투자가 15.4%, 영국의 투자가 12.9%, 네덜란드 9.7% 순이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7.8%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199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업종은 캐나다, 덴마크 등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지배적이었지만, 2018년에는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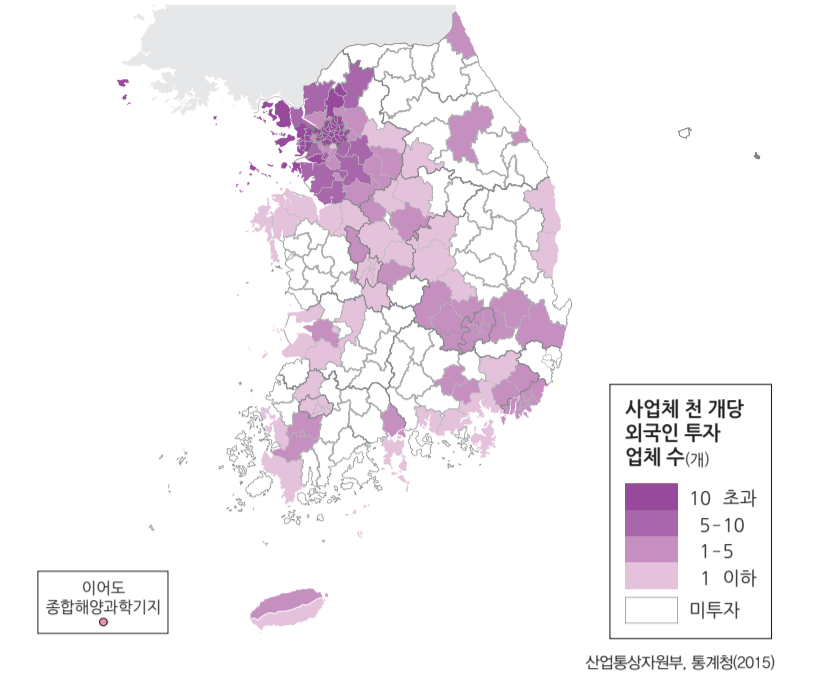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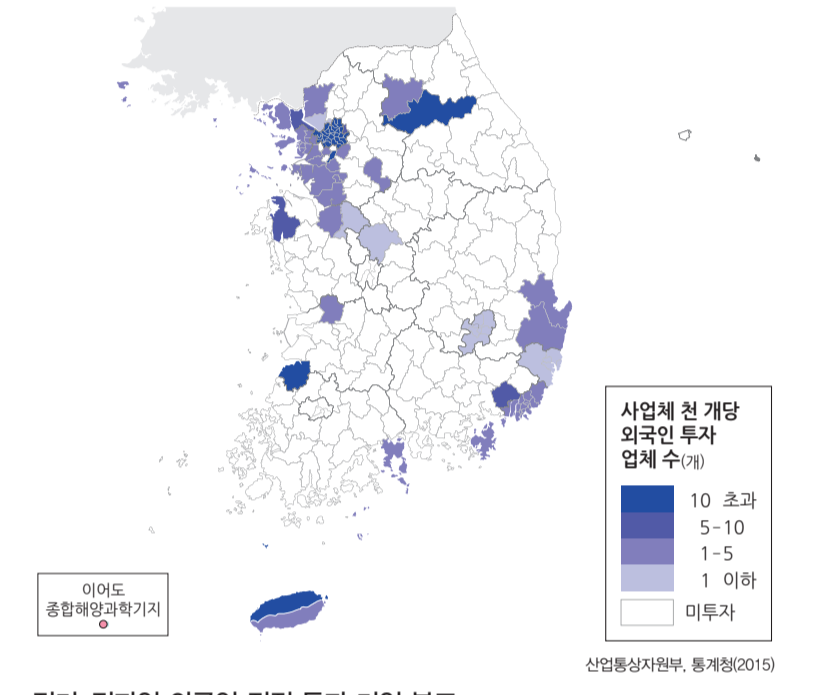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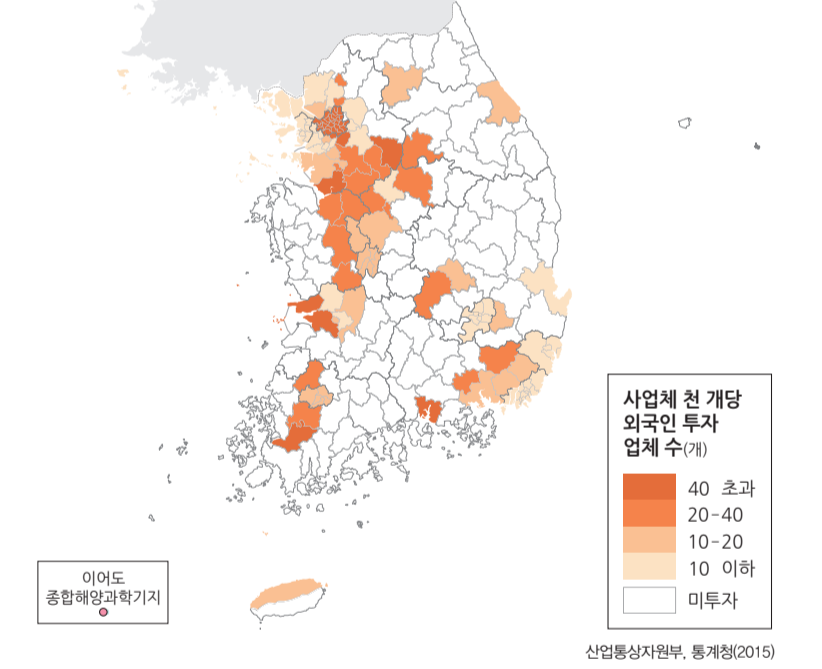
도·소매(유통)업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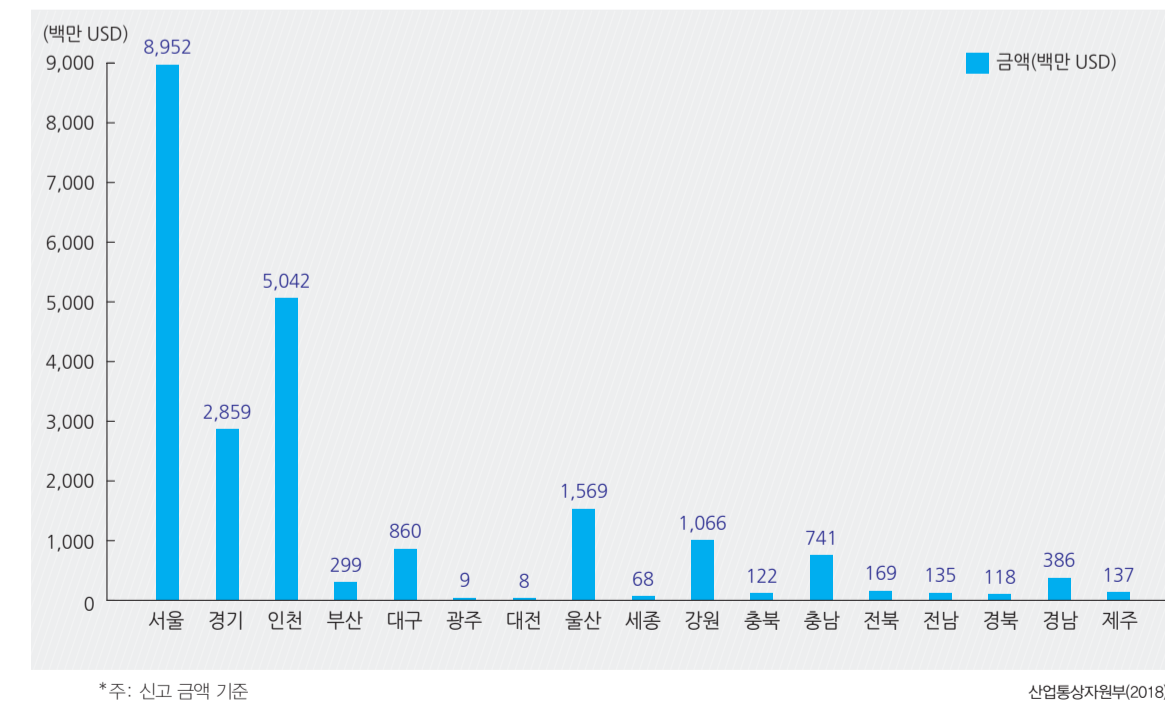
비즈니스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전기·전자업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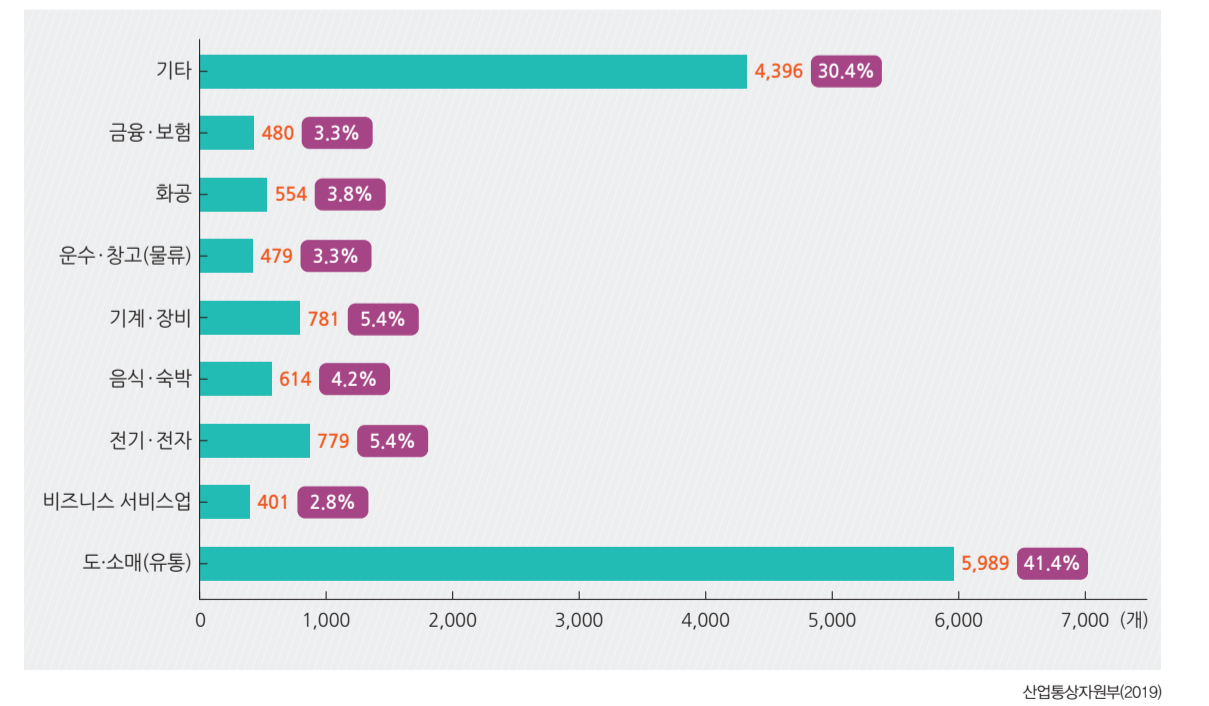


지역별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2018년)



2018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약 269억 달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약 168.5억 달러(62.6%)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광역시·도 별로는 서울특별시 약 89.5억 달러(33.3%), 인천광역시 약 50.4억 달러(18.7%), 경기도 약 28.6억 달러(10.6%), 울산 약 15.7억 달러(5.8%)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

업종별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현황(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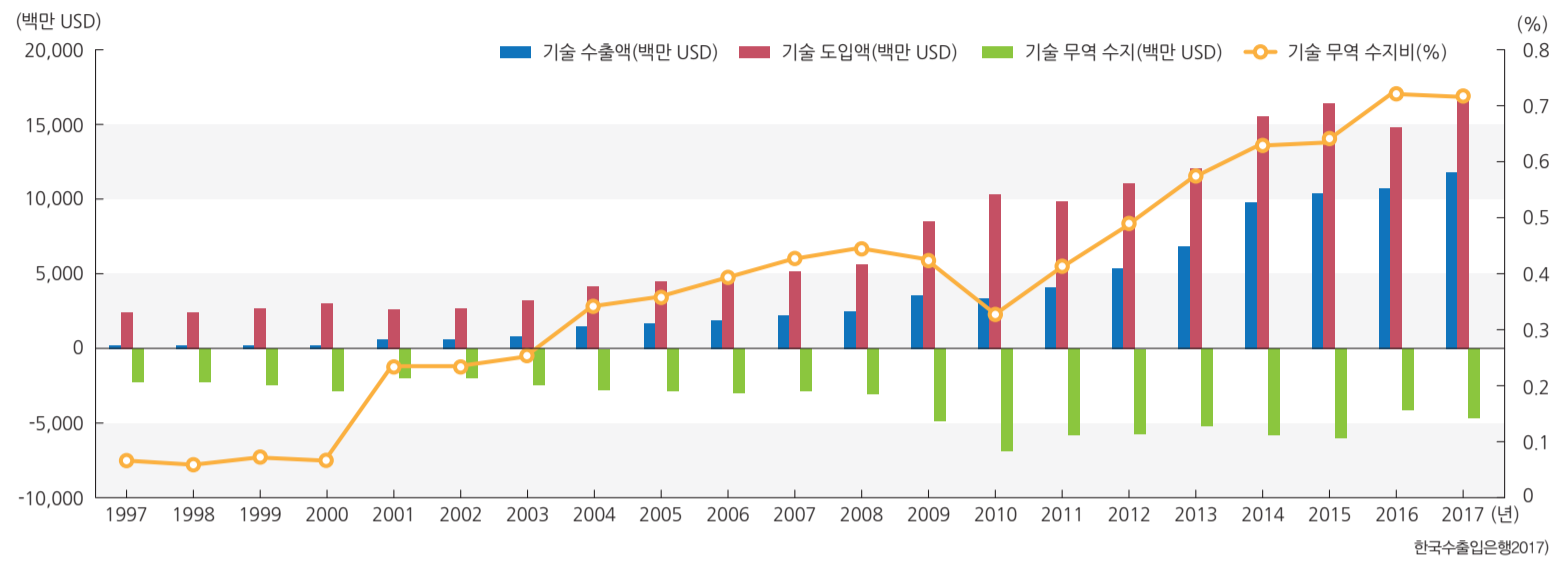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 기업 정보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우리나라에 14,473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유통)업 5,989개 (41.4%), 연구개발 및 전문과학기술업 1,032개(7.1%), 정보통신업 974개(6.7%), 기계장비 및 의료정밀업 781개(5.4%), 전기·전자업 779개(5.4%), 음식·숙박업 614개(4.2%) 등의 순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기술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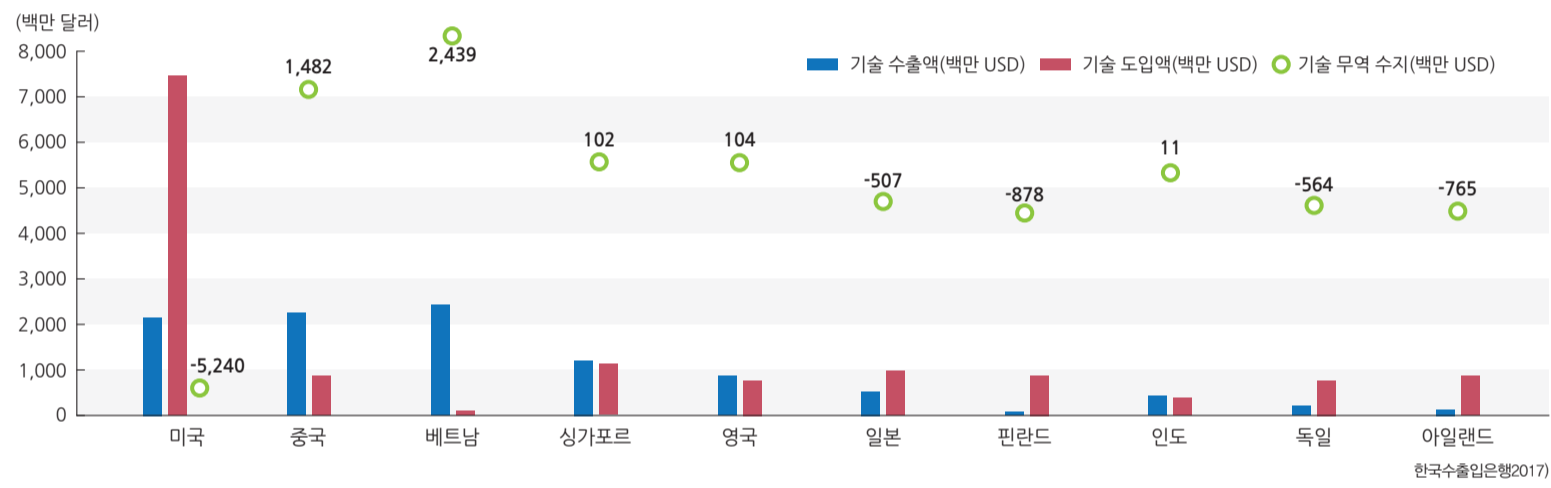
기술 무역은 기술 지식 및 기술 서비스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적·산업적 비용의 지출 및 수입이 있는 거래를 의미하며, 특허 판매 및 사용료, 발명, 노하우의 전수, 기술 지도,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기술 무역은 국가 간 기술 흐름과 해당 국가의 기술 및 산업 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기술 무역 수지는 국가의 기술력 수준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특히, 기술 무역 수출액과 도입액의 비율인 기술 무역 수지비는 한 국가의 기술 경쟁력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 규모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 무역의 규모는 1997년 25.8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9년 120.2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282.7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기술 무역액 대비 기술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6.3%에서 2017년 41.7%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기술 수출액을 기술 도입액을 나눈 기술 무역 수지비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한국의 기술 무역 수지비는 0.07에서 2010년 0.33, 2017년 0.72로 점점 나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 실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96.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일본, 핀란드, 인도, 독일, 아일랜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출 실적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기술 수출액 비중이 99.9%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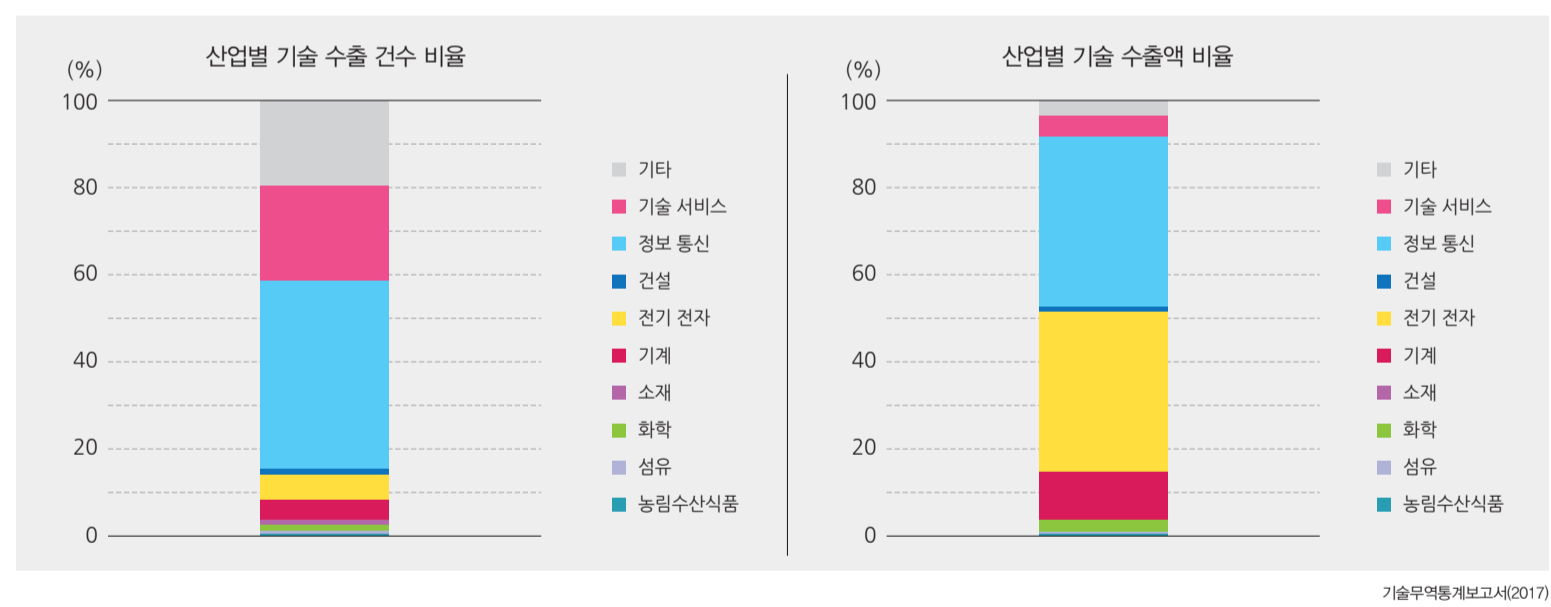
기술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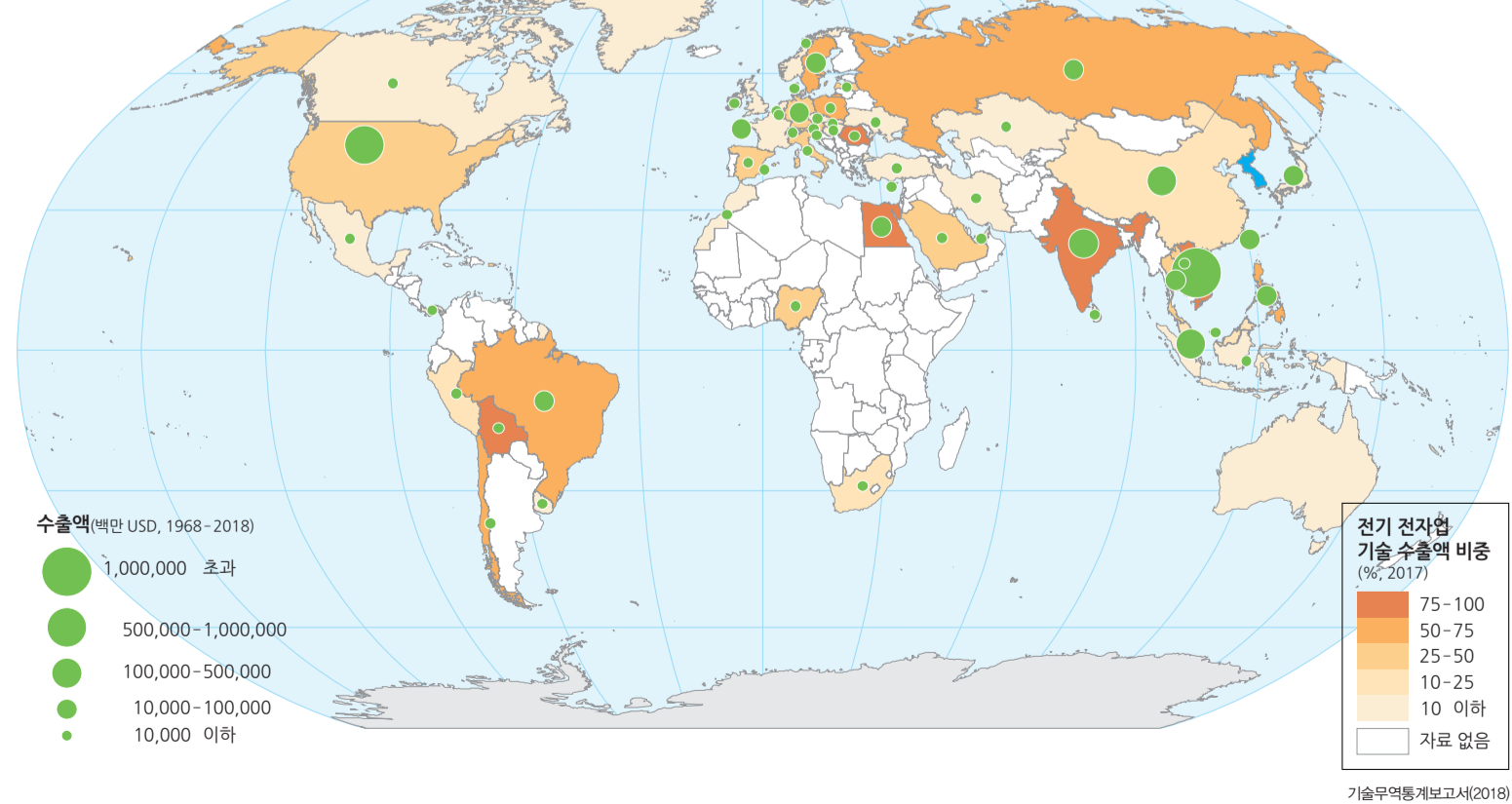
기술 무역액 상위 10개 국가 기술 무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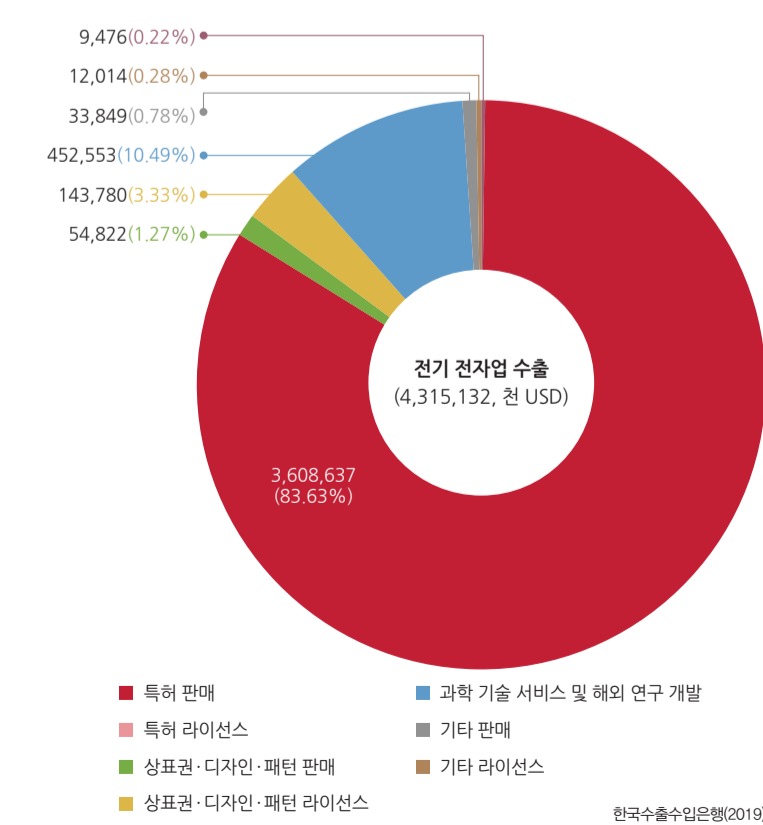
산업별 기술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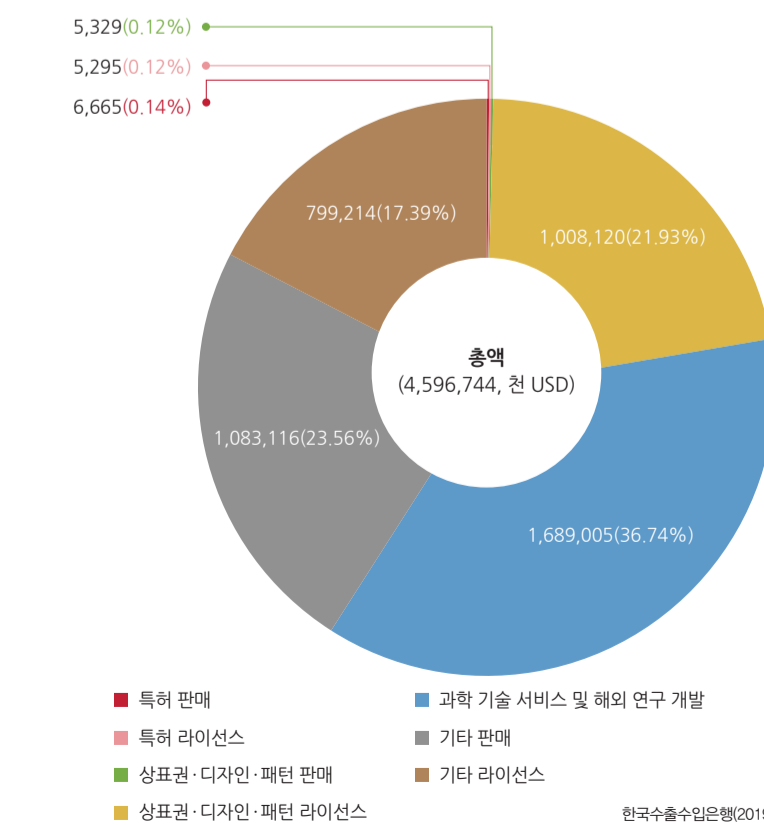
전기 전자업 기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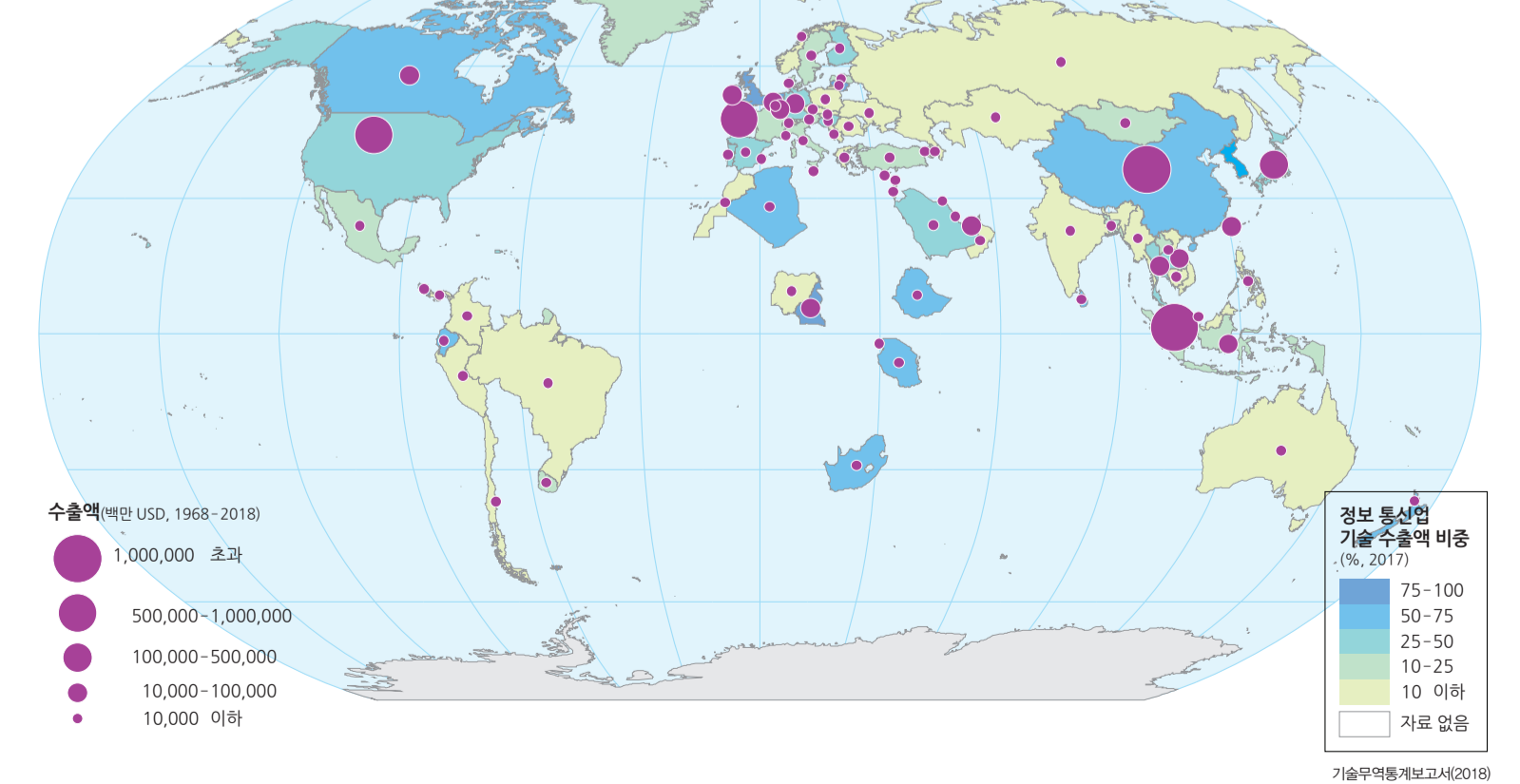
전기 전자업 기술 유형별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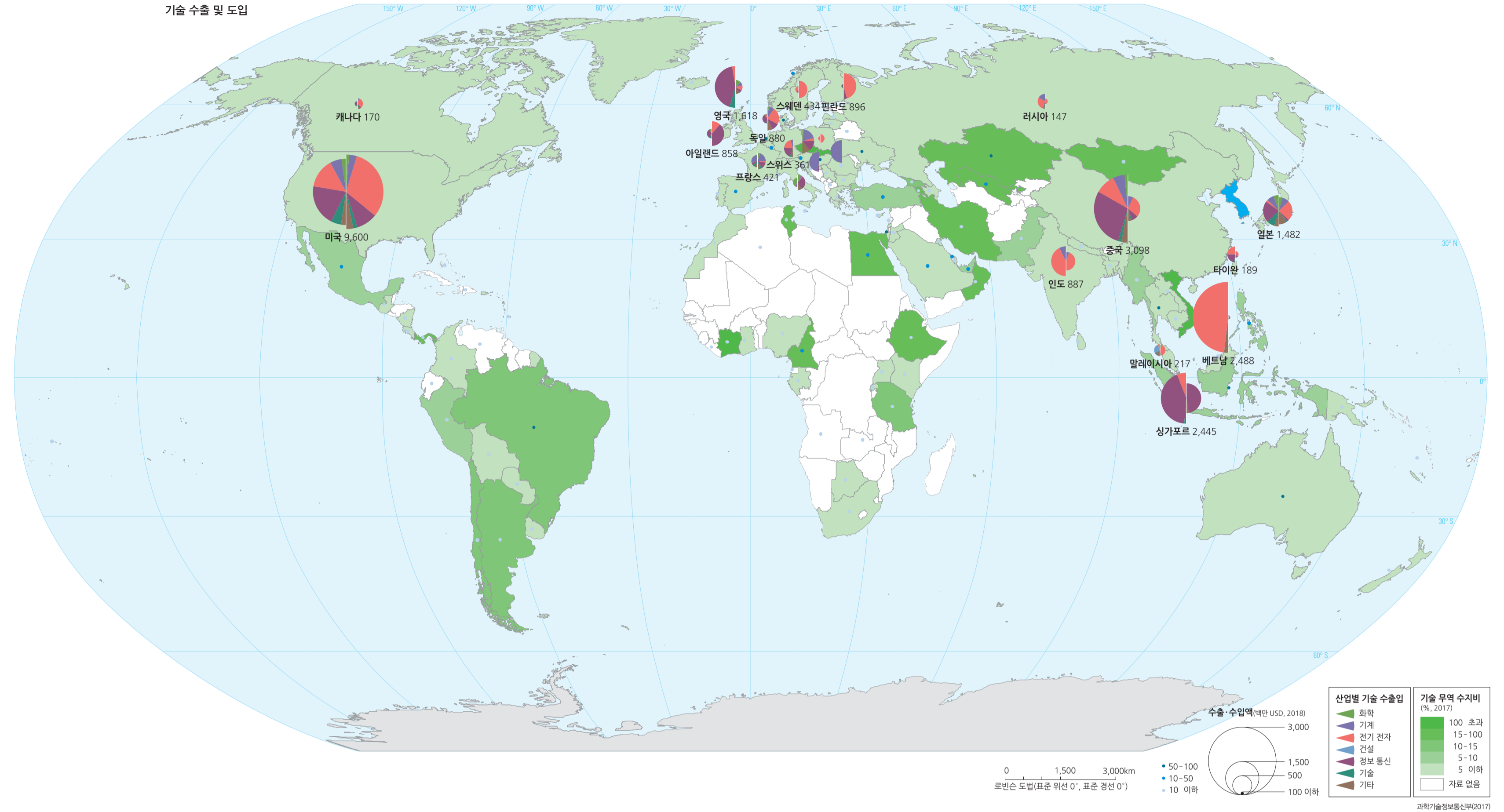
정보 통신업 기술 유형별 수출 현황



정보 통신업 기술 수출



기술 수출 및 도입



기술 수출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78년에 처음 시작된 기술 수출은 1.6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5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7년에는 118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7년 이후 약 70배 이상 성장했다. 기술 수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기술 수출액 기준 전기 전자 부문의 비중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 부문이 19.8%였다. 그러나 2017년

정보 통신 부문의 비중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 전자 부문의 비중은 36.6%를 기록했다. 기술 도입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전기 전자업의 발달과 더불어 신 기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미국 기술 의존도가 가장 높아졌다.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액 비중은 2017년 현재 45.0%인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액 비중은 1997년 기술 무역액 대비 기술 도입액의 비중은 93.7%를 차지할 정도로

도였다. 기술 도입 실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까지는 대일 기술 의존도가 가장 높았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전기 전자업종 관련 고가의 첨단 기술 도입이 증가하면서 대미국 기술 의존도가 가장 높아졌다.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액 비중은 2017년 현재 45.0%인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액 비중은 6.0%에 불과하다.